

인간문화재(人類文化財) 보존(保存)을 위한 유네스코의 공헌(貢獻)

거대한 문화재 보존운동은 참으로 그 자체에도 큰 의의가 있으나 또한 사상 처음으로 정치이념 이종 문화적인 장벽을 초월하고 국제적인 협조하에서 단결되고 추진된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원 창 훈

- I. 유네스코의 문화활동
- II. 유네스코의 문화재 보존 운동
- III, 각국에서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공헌

I. 유네스코의 문화활동

세계 여러 나라 문화의 서로 다른 양상이나 특색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이를 상호 존중하고 이해를 하므로써, 모든 민족간의 올바른 문화적 가치관을 인식하고 그 참뜻을 이해하게 함은 유네스코 문화활동의 목적이라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유네스코의 문화활동은 세계 각국 문화에 대한 모든 국민들의 지식과 존중심을 널리 보급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의 터전을 마련함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승되어 온 계승작품, 서적, 기념물 등의 허다한 인류의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자간의 교류 연구회 출판물 등을 통하여 각국의 문화와 국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박물관도서관의 발전과 확장 및 학교교육을 통한 문화의 발전과 문화적인 자료의 보급 및 이와 관련되는 강좌, 전시회 등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문화단체와 협조를 하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여러가지 지식 정보 및 자료 등의 교환으로 각 문화의 독립성, 고유하고도 다양성있는 그 특징 등을 존중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며 발전 시키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의 문화활동의 내용을 예시하여 보면, 우선 一九五七年부터는 동서양 문화가치 상호감상(相互鑑賞) 一〇年 계획 이라는 하나의 중점사업을 설정하여 광범위한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하에서 상호간의 인물지식 및 문화적인 여러 작품 등의 교류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온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유네스코는 그 문화적인 가치가 높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널리 전세계 국민에게 알려지지 못한 문화재를 보다 우수한 현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즉, 원색판(原色版) 인쇄를 통한 서적이거나 전시회를 통하여 만인(萬人)에게 소개하고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유고슬라비아나 남미의 혹은 노르웨이의 교회 내에 서만 볼 수 있었던 중세기(中世紀) 시대의 벽화(壁畫)를 비롯하여 기타 우수한 세계 각국의 미술작품을 앨범이나 슬라이드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인류 역사적 처음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재보존운동을 一九六〇年代에

개시(開始)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은 현재에도 계속진행중에 있다. 한 국가근대화의 필연적인 결과로 六〇年에 아프리카 나일강 상류에 「아스완 댐」 건설로 인하여 거대한 「뉴바아(Nubia)」 지구(地區)의 고대사원(古大寺院)이 침수 매몰하게 될 위험에 부딪치게 되자 유네스코는 이 인류 공통의 문화재를 구출하고 다시 후세에 계승시키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 세계의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기술진을 총 동원하여 이의 이전과 보존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아프가니스탄 바미안(Bamiyan)에 위치하고 있는 큰바위에 조형되어 있는 불상. 3~5세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73피트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불상 최후기에 있는 사람과 비교)

유네스코는 또한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형태의 인류 조사 및 현대기술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국제 문화재 보존 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f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를 로마에 설치한 바도 있다.

매(每) 이년(二年)마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총회는 이러한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국의 국가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는 이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의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을 촉구하기 위한 조약이나 건의를 과거에 채택한 바 있으며, 이의 준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약이나 건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시 문화재 보호조약 (五次 총회에서 채택, 六一年 一一月에 발효)
- ②, 고고학적 □□ □□□□ 국제적 원칙에 관한 건의(九次 총회에서 채택)
- ③, 박물관을 만인에 공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건의(一一次총회에서 채택)

- ④, 국토의 미와 특징 보존에 관한 건의(一二次 총회에서 채택)
 - ⑤, 공사적인 작업에 의하여 위협 받는 고적기념물의 보존을 위한 연구(一三次 총회(一九六四)의 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차기(次期)一四次 총회(一九七六年末)에서 논의 될 예정)
 - ⑥,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출입 및 판매의 금지를 위한 건의안(一三次 총회의 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금년말 개최예정인 一四次 총회에 상정될 예정임)
-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총동원하여 올바른 역사관의 입장에서 전 인류의 과학과 문화재인 발자취를 고대에서 현대까지 집대성하여 후세에 남기기로 한 全六卷에 달하는 인류 과학 문화 발달사(History of Scientif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Mankind)의 편집과 그 간행은 유네스코의 자랑이라 할 수가 있다.

II, 유네스코의 문화재 보전 운동

유네스코는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주의와 무관심 또는 자연적인 황폐나 침해로 인하여,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인류의 문화적 유산이나 기념물을 보존함에 있어 각 국가의 정부나 국민들이 보다 더 이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어떠한 조치를 촉구케 하는 국제 문화재 보존운동을 一九六四年 六月부터 전개중에 있다. 즉, 위협에 처하고 있는 인류 공통의 문화재나 기념물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 각국은 가능한 모든 복구와 보존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유네스코는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국제적인 면에서 해결함에 모든 전문적인 기술과 협조를 제공키로 되어있다.

우리들은 과거에 있어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영속적(永續的)으로 주는 인류의 문화적인 유산이나 기념물에 대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등한시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전래되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감상할때에 이를 끊임없이 보살피지 않으면 서서히 허물어져가고 종국(終局)에는 소멸되어 간다는 취약성(脆弱性)과 또한 그 보존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위험이란 너무나도 건조하거나 다습한 기후, 태양의 직사광선이나 그 반대로 한랭에서 오는 해(害), 심한 바람이나 모래에 인한 것, 또는 무성하는 초목이나 벌레 등 자연적인 것들을 들 수가 있으며, 또한 인간자신들에 의한 몰지각한 행동, 혹은 무관심과 등한 등 여러가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과분(過分)한 손질이나 개수(改修)로 인하여 오히려 기념물의 보존에 역행하는 결과를 인간이 초래하는 수도 있다.

또한, 근래에 와서 각국은 그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국가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그들 목전(目前)의 일에만 그 시야(視野)를 국한시키고 경제적인 이유, 도시의 발전, 공업시설의 확장 등과 같은 그들의 시대적인 요구에만 중점을 두고 무자비하게 문화적인 유산이나 기념물을 파괴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 인류의 유산과 장래의 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요구의 사이에서 보다 심중(深重)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호소에 의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위(全位)의 위기에서 구출이 가능하게 된 「뉴비아」의 기념물 보존운동은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이 국제적인 상호이해와 협조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뉴비아」에서 이루어진 국제적인 대규모의 이러한 문화재 보존운동은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인류의 유물이든 이를 보호하고 보수 또는 복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도 고정된 자리를 떠나 딴 곳으로 이전시키는 데에 충분하고도 필요한 현대적인 기술과 수단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 것이다. 즉, 지금 전 세계의 풍부한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사적인 기념물들은 이제 완전보존을 기약(期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여 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물과 유적의 전면적인 보존은 세계의 대부분을 하나의 거대한 인류의 박물관으로 만들수 있는 가능성마저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각국에서의 문화재 보호운동은 어떠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법률이나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만으로는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문화재나 기념물에 대하여 참된 가치관을 이해하고 일반 시민이 이러한 문화재를 직접 보존 보호치 않으면 영구적으로 이를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대적으로 보존하여야만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또 한편 현대의 훌륭한 매스콤을 통하여 이러한 문화재나 기념물을 통하여 이러한 문화재나 기념물들을 널리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만전(萬全)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감히 직접 방문을 하여 감상할 수 없는 외국의 또는 사막 깊숙히 위치하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사원에 관한 것이 잡지나 영화 등을 통하여 널리 학교의 어린이들까지에도 알려지게 되며, 인류 공동의 공감과 자랑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와같이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인류의 문화재나 기념물에 대하여 그들이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길러야만 한다는 기대에서 국제적인 문화재 보존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며, 또한 유네스코는 이러한 의식을 깊게 하고 인류의 문화적인 유산의 보호를 촉진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화재들은 모든 사람들 일상생활의 주요한 일부분이 되어질 것을 도한 회구(希求)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나 기념물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때로는 이러한 문화재나 기념물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목적이나 봉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들의 독특한 고정적인 위치는 이들의 독특한 고정적인 위치로 인하여 교통의 장애(障害)로서, 또는 과중한 재정적인 부담에서 도시의 현대화에 대한 도전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일에 이러한 기념물이 다행히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종교적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하여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다면 계속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훌륭한 봉사를 하고 있다면 계속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새로운 일상생활과의 관련을 맺도록 하게 하거나 새로운 목적이나 봉사를 위하여 개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화재나 기념물이 길이 보존되고 후세에 전달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또한 젊은 세대의 공감과 취미를 형성시키게끔 하여야 하며, 또한 역사적인 면에서 산 교훈이 되어 건(建)고 하나의 산 상징으로 그 지역사회의 명물로서, 또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재나 기념물들은 현대산업의 하나인 관광에 대하여 하나의 보다 고차원인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게 되어,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문화재로부터 결과되는 미학적 문화적 또는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되는 것이다.

Ⅲ, 각국에서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공헌

유네스코 본부는 국제적인 문화재 보존운동을 전개하기 이전에도 각 회원국 정부 요청에 따라 고도로 발달된 전문적인 기술의 제공이나 자문에 수시로 응하고 세계의 인류 문화재 보존에 있어 많은 공헌을 하여왔는데 그 중에서도 一九五一年 이후에 유네스코에 의하여 각국에서 실시된 실제적인 예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유네스코의 회원국 참여계획에 입각하여 본부는 문화재 보존복구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석굴암(石窟庵) 보수공사를 위한 전문적인 사전답사와 조사연구에 있어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一九六一年 七月부터 일개월간 「로오마」에 있는 문화재보존연구소의 소장인 「H.J. 플런더리스」 박사(Dr. H.J. Plenderleith)를 파한(派韓)하여 정부의 관계관(關係官) 및 국내의 저명한 문화재 보존학자들과 더불어 현지에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일련(一連)의 석굴암복구공사(石窟庵復舊工事)를 위한 기술적인 건의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후일의 공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또한 「플런더리스」 박사는 그 외의 문화재도 두루 사찰하고 이들의 보수나 보존을 위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도 있었다.

②, 파키스탄

약 사천년이전 인더스강 유역의 문화중심이 되었던 거대한 수도 「모헨조 다로」(Mohenjo Daro)의 문화재 보존문제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삼차(三次)에 걸친 조사단이 一九五六年, 六一年 및 六四年에 파견된 바 있다. 약 二五〇에이커에 달하는 이 광대한 황발지역은 인더스강과 관개수로부터 개발되어 온 명분 많은 물로 인하여 침식되고 황폐되고 있었다. 앞으로의 염수(鹽水) 침입을 제거하고 황폐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되고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이 광대한 지역을 보존복구함에 필요한 모든 「유네스코」의 협조와 전문가들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③, 인도네시아

一九五八年에 「유네스코」는 이 나라의 중요한 석조 기념물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조사한 바 있다. 「유네스코」 조사단은 특히 자바에 있는 거대한 「보르부도」 사원(Borobudur)을 포함하여 일련의 복구와 보존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거대하기로 유명한 불교와 관련된 기념물로서 이 곳의 석조 조각이나 불상들은 열대지방의 폭우와 극심한 기온의 변화 및 침식하는 잡초목(雜草木)들에 의하여 황폐되어 가고 있었다.

④, 이 란

三次(一九六〇, 六二 및 六三年)에 걸쳐 「유네스코」의 조사단이 세계적으로도 그 역사적인 기념물이 많은 곳으로 이름있는 「페세포리스」(Persepolis), 「페사거디」(Pasargadae), 「츄가 잠빌」(Chuga Zambil)에 있는 「지그랏트(Ziguart)사원」 및 「이스판」(Ispahan)의 궁전과 총화 등에 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미 「이스판」의 궁전과 총화는 현재 복구 보존 중에 있다.

⑤, 버 마

한때에는 四, 〇〇〇여개(餘個) 달하는 가지 각색의 탑이 산재하여 있었던 고대 수도인 「페이간」(Pagan)을 중점적으로 답사하고 벽화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전문가 조사단이 「버—마」에 一九六一年에 파견된 바 있었다. 많은 건조물은 공구가 불가능하였으나 一一세기(世紀)에서 一三세기(世紀)에 그려진 벽화의 다수는 다행히도 이 조사단의 노력으로써 보존될 수가 있었다.

⑥, 아프카니스탄

이 나라 「바미안」(Bamiyan)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一七三휘트의

암석에 새겨진 불상은 한때 이 불상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 절벽 위로부터 三千톤에 달하는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짐으로써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다. 이에따라 一九六三年에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 「유네스코」의 조사단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상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방안을 현지에서 조사 연구 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헤라트」(Herat) 「가니지」(Ghazni) 「마잘」(maxar) 과 기타 고대 도시들에 있는 중요한 기념물들의 보존을 위한 여구를 한 바 있었다.



<분묘(墳墓)로부터 발굴된 초상화(肖像畫)>

약 4000년전에 뉴비아 지역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은 수단의 뉴비아 지역 한 분묘(墳墓)로부터 불란서(佛蘭西) 고고학자단(考古學者團)에 의하여 발굴(發掘)된 마스크로부터 뜬 것이다.

⑦, 이 락

침수작용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가고 있는 흙벽들이나 부스러져가는 암석으로 된 이락의 고대기념물의 시급(時急)한 보존조치를 위한 연구가 一九五四年과 一九六一年 두차례에 걸쳐 「유네스코」에 의하여 실시되었었다. 당시에는 「바그다드」 「니니비」(Nineveh) 「테시폰」(Ctesiphon), 및 「하트라」(Hartra)를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 「테시폰」의 「아—취」(Arch of

Ctesiphon)는 벽들로 紀元 五世紀에 건축된 바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폭이 넓은 이 종류의 「아—취」로서 유명한데 이의 보존을 위한 조치도 동시에 연구되었었다.

⑧, 을 단

一九五六年과 다시 一九六〇년에 「유네스코」 조사단은 「베트레헴」이나 「쥬루살렘」 등지와 같은 성지(聖地)에 있는 고전(古典) 이전(以前) 또는 고전(古典)에 속하는 성지(聖地)나 기념물 그리고 십자군(十字軍)이나 「이슬람」 교의 사원과 성곽 및 중세기 시대의 건물이 잔존하고 있는 도시 등을 두루 살피고 이들의 복구와 보존을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을단은 새로운 도시의 계획과 국토보존에 있어 각별한 유의를 경주하게끔 되었다.

⑨, 시리아와 레바논

一九五三年에 유네스코는 많은 유적과 기념물의 복구와 보존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二个의 조사단을 시리아와 레바논의 조사단을 시리아와 레바논에 파견하였었다. 시리아에 있어 이들 조사단이 답사를 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고대도시로서 현재는 사막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는 「페루마이러」(Palmyra)의 폐허 유명한 Krak des Chevaliers를 포함한 십자군(十字軍)의 성곽 「아레포 암드 다마스카스」(Aleppo and Damascus)의 회교사원 「세루시드」(Selucide)시의 「도우라 유로포스」(Doura-Europos)의 폐허(기원전(紀元前) 사세기(四世紀) 시대의 유적), 또 한편으로 레바논에서 답사된 곳은 로오마시대의 가장 훌륭한 유적이나 기념물중의 하나인 「트리폴리」(Tripoli)시와 「바아르베크」(Baalbek) 폐허의 많은 쉼니키아, 로오마, 기독교, 아랍 및 「오토만」 시대의 기념물 등이었다. 一九六〇년에 유네스코는 다시 또 하나의 조사단을 시리아로 파견하였었다.

⑩, 뉴비아(기념물 보존국제운동)

유네스코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인류 문화재 보존운동은 뉴비아지구에 있는 수 많은 고적 기념물의 보존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국제적인 운동은 통일 아랍공화국이 그들이 국가근대화에 따라 유네스코의 기술 및 재정원조로 「아스완」(Aswan)댐의 공사(工事)를 개시(開始)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 「아스완」 댐이 나일강 상류에 건설됨으로써 이 거대한 나일강 유역 뉴비아 지구(地區)에 산재(散在)하여 있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고적, 기념물 사원등, 四公〇〇〇여년(餘年) 이전의 인류공통의 고귀한 문화재가 물 속에 파묻히게 될 위기에 부딪치게 되고 아랍공화국이나 수단만으로는 도저히 이를 구출할 수가 없게 되어 유네스코로 이들 기념물의 보존을 세계 각국에 호소하게 되자 유네스코는 第一三次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대적인 국제적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뉴비아 지구(地區) 기념물 보존운동을 위하여 40여개국가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우표(記念郵票)의 일부. 이 중에는 한국의 우표(郵票)도 포함(包含)되어 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 「아부 심벨」(Abu Si mbel)사원의 보존과 이에 부수(附隨)되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여러 회원국의 자발적인 재정적 원조를 비롯하여 각종 전시회와 기념우표의 발행 등을 통한 기부금의 모집을 한 바 있으며, 또한 고도로 발달된 현대과학의 모든 기술을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제공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국제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국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사상 처음으로 이 운동을 위하여 一千弗을 희사한 바 있으며, 또한 一九六三年 十月에는 이 국제운동을 돕기 위하여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 보존운동을 실천함에 있어 각국 전문가와 유네스코 당국은 그 보존방법에 있어 상당한 논의와 기발한 구상이 많이 대두되었으나 결국 통일아랍공화국과 서전(瑞典)에서 제안한 「아부 심벨」 사원을 각 부분별로 절단 분해하여 따라 새로이 마련된 지역으로 이전시켜 이를 원장(原狀)에 가깝도록 재건립시키기로 합의를 보게 되었으며, 현재에도 이 계획에 따라 공사는 상당히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완결 밑에서 과학적인 작업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약 二〇여개국으로부터 파견된 고고학자와 보존기술자들이 직접 이 작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현재 「아부 심벨」 사원에서 진행중인 작업은 주로 서독정부주제(西獨政府主帝) 하(下)에 서독, 통일 아랍 공화국(共和國) 불란서(佛蘭西), 이태리 및 서전(瑞典)의 저명한 건축회사들로 구성된 International Joint Venture 회사에 의하여 담당되고 있는데 예비비 四〇〇萬弗을 포함한 통 三,二〇〇萬弗에서 三,六〇〇萬弗 사이의 계약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권위있는 기사 사공명과 해급 기사(技師)一〇名, 그리고 노무자 八〇〇名이 종사하고 있는 이 공사의 대체적인 순서는 우선 저수지 만수(滿水)에 대비하여 사원 전면(前面)에 방축(防築)을 건설하고 그 전면(前面)을 모래를 싸올려 보호 또는 강화하고 다시 사원 상층 암석을 제거하고 조각표면에는 보호카바를 씌우게 되고 사원전체의 부분적인 분해작업을 비로서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이 단계의 작업이 진행중인데 특히 조각 표면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분해작업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각 부분에는 번호가 붙여지게 된다. 이 작업 과정에서 사석부분(砂石部分)을 화학적으로 더욱 굳게 하는 약품이 사용되고 있고, 특수한 새로운 톱이 이용되고 있으며, 또 거대한 기중기(起重機)도 동원되고 있어 그야말로 현재과학의 모든 수단이 이에 동원되

고 실천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분해된 각 부분은 그 단위별로 새로운 위치로 운반되고 현재위치보다 약 一八〇m내육지의 나일강 수면보다 六四m 높은 위치에 원형에 가깝도록 재건될 예정이며, 그 후에는 인공적인 구릉(丘陵)을 포함하여 원래의 모습대로 미화(美化)될 예정인데 이 작업 전체는 처음 착공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약 六年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문화재 보존운동은 참으로 그 자체에도 큰 의의가 있으나 또한 사상 처음으로 정치이념 인종 문화적인 장벽을 초월하고 국제적인 협조 하에서 단결되고 추진된 것에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⑪, 카메룬

一九六四年에 유네스코는 「휠반」(Foumban)에 있는 「바—문」(Bamoun)문학의 창설자인 「술탄니요야」(Sultan Njoya)의 궁전을 복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파견하였었다. 당시에 이들 전문가는 이 궁전이나 추장들 집에 보존되고 있는 조각되어 있는 목판(木版), 가구(家具), 가면(假面) 등의 예술작품을 또한 세밀하게 연구 조사 하였었다.

⑫, 알제리아

알제리아에 있는 기념물들은 석조물로 된 역사적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셀셀」(Cherchel)의 로—마시대도시에 있는 극장과 목욕장 또는 그 곳에 있는 회교도(回教徒)의 기념물을 비롯하여 야생무화과수(野生無花果樹)의 침범(侵犯)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세티후」(Setif)의 비잔틴성채 및 「팀가드」(Timgad)의 로오마시대 도시들을 들 수가 있다. 一九六三年에 유네스코는 「팀가드」시를 두루 답사하고 유명한 Qual's Beni Hammad 회교사원(回敎寺院)의 우선적인 복구를 알제리아정부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었다.

⑬, 모로코

아름다운 회교사원(回敎寺院)의 첨탑(尖塔)으로 감싸여져 있는 「훼즈」(Fez) 「메크네스」(Marrakesh) 등의 고대 도시는 그 자체가 훌륭한 하나의 유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에 현대적인 고층건물이 이 곳에 세워지게 된다면 이 곳의 미학적인 조화와 특징이 파괴될 것이라고 「유네스코」의 전문가들은 一九六二年에 경고한 바 있었는데 그 결과 다행히도 이들 도시는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들 전문가는 또한 고대문서의 보존을 위한 박물관과 도서관의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고고학적인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로오마시대도시인 「보루비리스」(Volubilis)에서 나온 「모자이크」의 특별한 보존과 취급에 관한 방법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⑭, 스페인

스페인의 화려하고도 가치있는 예술적 또는 문화적인 유산과 보물들을 영구히 보존하고 후대에 잘 전달하기 위하여 스페인정부는 최근에 현대적이고도 최신식 기술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앙문화재보존연구소(中央文化財保存研究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네스코는 一九六三年에 이 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원조를 비롯하여 이 연구소 요원 훈련을 돕기도 하였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스페인 북부의 「리폴」(Ripoll) 수도원에 있는 「로마니스크」식 조각과 「토테도」(Toledo)의 대사원에 있는 一四紀 시대의 벽화를 복구보존하게 될 것이다.

⑮,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트라코니스」(Strakonice) 및 「사자바」(Sazava)에 있는 수도원을 비롯하여 「슬라브틴」(Slavetin)의 교회 및 「프라그」(Prague)에 위치하고 있는 「칼스테인」(Karlstejn)의 성곽 그리고 「에마우스」(Emaus)의 수도원 등에서 상당수에 달하는 고귀한 「고딕」식 一四世紀의 「후레스코」(벽화(壁畫))를 소장하고 있다. 一九六〇년에 유네스코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후레스코」작품의

보존에 관하여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프라그」에 있는 「후레스코」는 二次 세계 대전 중에 손상을 입었으며 「칼스네인」에 있는 기타 작품들은 부식(腐食)의 해(害)를 입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며, 곧 이어 보존을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게 되었었다.

⑩, 페루

유네스코는 一九五〇年 지진(地震)에 의하여 파괴된 고대 「잉카」제국의 수도인 「쿠스코」(Cuzco)의 복구를 그 이듬해인 二九五一年에 착수하였다. 「유네스코」는 또한 一六九四年에 중앙미술작품보존연구소(中央美術作品保存研究所)를 「리마」에 설치함에 있어 협조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무」(Chimu)제국의 옛 수도인 「찬찬」(Chan Chan)의 폐허를 포함한 페루의 기념물 복구와 보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다.

⑪ 멕시코

멕시코의 한 밀림 속에 위치하고 있는 「보남팍」(Bonampak)사원의 여러 조각 작품과 고정벽화(固定壁畫)들은 七世紀 時代 「마야」조의 생활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하나의 백과(百科)로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보남팍」사원이 습기로 인하여 위태로울 정도로 붕괴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유네스코」는 이러한 국보들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삼차(三次)에 걸쳐(一九六一, 六二 및 六四年)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이들의 보존을 도운바 있다.

IV, 유네스코의 미술작품 보존 운동

유네스코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규모가 거대한 인류문화재에 대하여서만 보존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문화재 자체가 크기에 있어서는 적다 하더라도 이들의 영구적인 보존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그 문화재 자체가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미술작품으로서 그 가치가 높이 인정되었을 때 그 작품의 보존뿐만 아니라 보다 더 참된 이해와 감상을 위한 수단이 유네스코에 의하여 취하여졌었다.

즉, 유네스코는 그 예술적인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고, 그 작품 자체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 下에서,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보존을 최대한으로 연장할 수 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운명이어서 다시는 이들을 감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세계적인 미술 걸작품을 이 세상에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미술총서(世界美術叢書)(World Art Series)로 알려져 있는 이 일련(一連)의 전집도서(全集圖書)는 현재 二二卷까지 발행되어 있는데, 四八cm×三四cm크기의 그 규격이 큰 이 도서는 교도로 발달된 현대의 인쇄기술을 총동원하여 거의 원작품(原作品)에 가까운 정도로 제작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들로 제작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들 미술적작품들은 천연색 「슬라이드」로도 수록되어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 배포되어 고대적인 미술을 감상하고 연구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미술총서(世界美術叢書)는 각국별로 편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수록된 걸작미술작품(傑作美術作品)의 내용중에서 그 중요한 것들을 예시하여 보면 중세기(中世紀) 혹은 그 이전의 각종 미술작품(美術作品)으로 지금까지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 즉 사원(寺院) 암석(岩石) 분묘(墳墓) 동굴(洞窟) 등에는 또는 「후레스코」 혹은 벽화(壁畫) 「모자이크」 「미니에추어」 서체(書體) 소장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년 二, 三千이 간행될 예정인 이 총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쇄회사(印刷會社)인 New York Graphic Society에 의하여 인쇄될 것이며, 이와 같은 고대 미술작품의 복사 보존과 홍보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 이 문화적인 사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본부는 각 회원국(會員國) 정부(政府) 및 국내위원회(國內委員會) 그리고 미술학자들과 면밀한 연락 및 협조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 총서를 통하여 유사한 한국의 고대 미술 걸작품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현재 그 기초적인 조사연구와 이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를 모집 중에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유네스코를 통하여 발간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필자(筆者) · 유네스코기획실장(企劃室長))

탁본(拓本)

탁본(拓本)의 시원(始原)은 당대(唐代)라는 설이 유력하다 석경(石經)과 석고문(石鼓文)의 연구 또는 법첩제작(法帖製作)에 많이 이용되었다. 당대(唐代)에 있어서의 지묵(紙墨)의 개량이 이 기술을 크게 진보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송대(宋代)에는 고동기(古銅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고로 거기에도 응용되게 되고 묵(墨)의 농담(濃淡)에 의하여 오금탁(烏金拓)이라든가 선익탁(蟬翼拓)이란 명(名)도 생겼다. 탁본(拓本)을 사용하는 것은 최근에도 주로 동양(東洋)에서 뿐이고 서구(西歐)에서는 지종(地種)이나 묵(墨)의 재료관계상 활용되어 있지 않다

탁본(拓本)의 이점(利點)은 기물(器物)의 문양이나 문자를 손쉽게 본래의 크기대로 박아낼 수 있는데 있다. 판별하기 어려운 마멸(磨滅)된 문양이나 명문(銘文)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점은 사진(寫眞)보다 훨씬 우수할 때가 있다.

또한 주조품(鑄造品) 등에 있어서도 그것이 같은 형(型)의 제품이나 아니냐를 분별함에도 대단히 편리하고 감경(鑑鏡)의 연구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용범위는 거의 평면적인 것에 한정되어 유물전체의 개념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진(寫眞)·측도(測圖)가 병용되어야 한다.

탁본(拓本)의 방법에는 건탁(乾拓)과 습탁(濕拓)의 이종(二種)이 있다. 건탁(乾拓)은 기물(器物)의 표면에 지류(紙類)를 대고 담묵(淡墨)으로 직접 문지른다든지 포(布)에 문힌 유묵(遺墨)으로 문지른다.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기물(器物)이나 신속(迅速)을 요할 때에는 편리한 방법이나 세부(細部)의 표현에는 불충분하다. 지질(紙質)은 강한 것을 사용한다. 습탁(濕拓)에는 당지(唐紙), 화선지(畫仙紙)등의 섬유가 섬세하고 수분에 대하여 접촉성이 강한 것이 좋다.

이 방법은 얇게 종이(紙)를 기면(器面)에 붙이고 물은 얇게 발라서 솜이나 솔로 위로부터 눌러 기면(器面)의 □□을 낸다. 종이가 마르는 것을 기다려 유묵(油墨)이 묻은 솜방망이로 가볍게 두드려서 형(形)과 문양(紋樣)을 나타낸다. 솜방망이란 것은 솜을 안에 넣고 연한 명주로 감싼 것으로 기물(器物)의 대소(大小)에 따라 수종류(數種類)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다.

탁묵(拓墨)은 묵즙(墨汁)이라도 좋지만 이럴 때에는 항상 방망이를 두 개 사용하는 것이 좋다.